

비, 할리우드 첫 영화 홍보 월드 투어

한국 배우들 할리우드 입성 활기

상반기 할리우드 최고 기대작 중 하나인 '스피드 레이스'가 5월 8일 전 세계에서 동시 개봉된다. '스피드 레이스'가 유독 한국 관객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바로 가수 출신 배우 비 때문이다.

할리우드 데뷔작으로 '스피드 레이스'를 택한 비는 20일부터 한국을 시작으로 출연배우들과 함께 홍콩, 미국, 일본 등 전세계 월드 투어를 시작한다. 지난 2002년 박중훈이 '찰리의 진실'로 할리우드에 진출한 이후 잠시 주춤했던 한국배우들의 할리우드 입성이 활기를 띠고 있다.

드라마 쪽에서는 '로스트'로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김윤진이 가장 두드러지며 영화 쪽에서는 장동건, 이병헌 등 국내 톱 영화배우들 보다 가수 비가 단연 앞서가고 있다. 이제는 '월드 스타'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특히 비는 다른 배우들과 달리 메이저급 제작사, 스타 감독과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비는 '매트릭스' 시리즈로 유명한 워쇼스키 형제 감독의 부름을 받고 할리우드 첫 진출작으로 '스피드 레이스'의 촬영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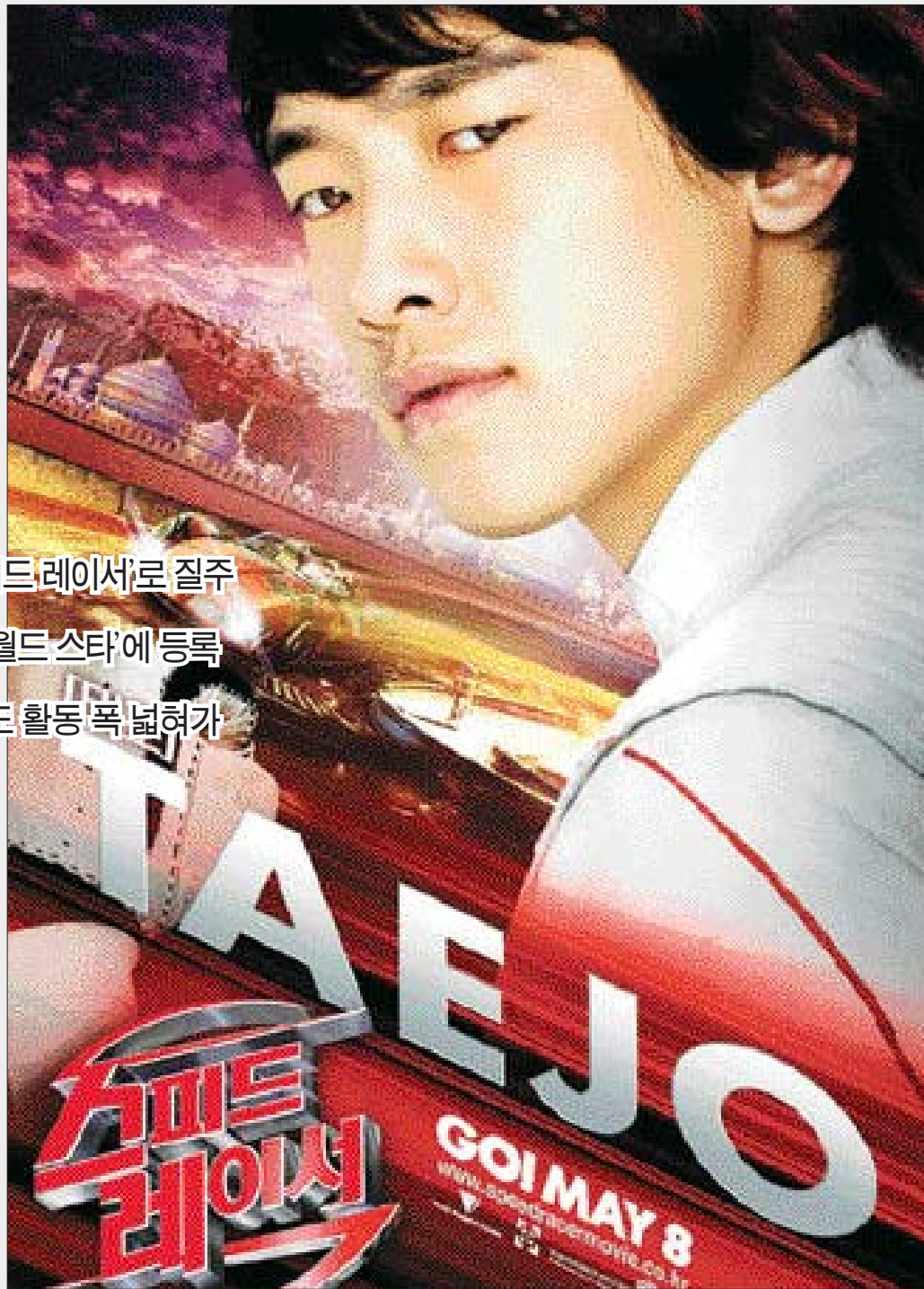
'스피드 레이스'는 3억 달러의 제작비와 8천만 달러의 마케팅비가 투입된 초특급 블록버스터로 각종 비리와 음모가 난무하는 죽음의 레이스에서 전 세계 최강 레이스들이 벌이는 대결을 그리고 있다.

비는 태조 토고 칸 역으로 출연, 가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시아인 레이스를 연기했다.

비는 이미 할리우드 차기작도 결정 지은 상태다. 비는 워쇼스키 형제가 공동 제작자로 참여하는 '닌자 암살자'에서는 당당히 주연을 맡았다. 베를린에서 제작될 예정이며 최소 50만불 정도의 개런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god 출신인 박준형은 두 편의 블록버스터 촬영을 마쳐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을 준비를 하고 있다.

'스피드 레이스'에서 가수 비와 함께 출연한 박



비는 20일부터 한국을 시작으로 출연배우들과 함께 홍콩, 미국, 일본 등 전세계 월드 투어를 시작한다.

블록버스터 '스피드 레이스'로 질주

이병헌·장동건 '월드 스타'에 등극

전지현·송혜교도 활동 폭 넓혀가

준형은 할리우드의 또 다른 블록버스터 '드래곤 볼'에서 주요 배역인 야무치 역을 맡았다.

이병헌은 '씨름로'로 유명한 태국의 트란 안 흥 감독의 작품으로 할리우드에 도전했다.

'나는 비와 함께 간다'(I Come with the Rain)를 촬영중인 이병헌은 이 영화에서 조연인 홍콩 암흑가 보스 역을 맡았다.

이 영화에는 '진주만' 등을 통해 한국에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할리우드 톱스타 조쉬 하트넷이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장동건은 할리우드 신예 스타 케이트 보스워스, 제프리 리쉬와 함께 '런드리 워리어'(Laundry Warrior)를 촬영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촬영중인 이 영화는 올해 미국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영화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지현 역시 할리우드로 활종 쪽을 넓혔다. 홍콩·한국·프랑스 합작영화 '블러드 더 라스트 뱀파이어'의 촬영을 마친 전지현은 이 작품에서 여전사 역을 맡았다.

다니엘 헤니는 유명한 '엑스맨' 시리즈인 '엑스맨 오리진: 울버린'에 출연키로 했으며 장혁은 볼름댄스 컴퍼니가 되기 위한 한국 청년의 이야기를 그린 '댄스 오브 더 드래곤'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다.

그밖에 송혜교는 뉴욕에서 제작되는 미국의 독립영화 '페티쉬'에 출연한다. 신비한 영적 능력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를 그린 심리실험물로 상대역은 영화 '퍼니 게임'의 주인공 아노 프리스티다.

9일 개봉한 '내가 숨쉬는 공기'의 메가폰을 잡은 이지호 감독은 할리우드에 진출한 한국 감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배우 김민호의 남편으로 알려진 이지호 감독은 미국 태생으로 1999년 처음 연출한 단편영화 '동화'가 선댄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올라 재능을 인정받았다.

'내가 숨쉬는 공기'는 인간의 4가지 감정인 희(喜)·노(怒)·애(愛)·락(樂)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돌아본 영화로 특히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포레스트 휘태커를 비롯해 캐빈 베이컨, 앤디 가르시아, 폴라 델피 등 초호화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화명	내용
연의 황후	춘추전국시대를 배경으로 역사 속에 숨겨졌던 러브스토리가 펼쳐진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히미	
테이큰	말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펼쳐진다. 18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히미	
내가 숨쉬는 공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감정인 희노애락을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 영화. 18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 CGV(첨단), 씨너스 전대	
스트리트 킹	키아누 리브스가 형사로 출연해 LA의 밤과 낮을 리얼하게 보여준다. 18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히미	
킬 워드 미	살인현장이 UCC로 생중계 되는 스릴러 영화. 18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히미	
나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	한 남자와 세 여자가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나는 로맨틱 코미디. 15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	
전투의 매너	사교왕이던 전혀 다른 두 남녀의 90년대식 연애이야기. 18세 관람가.
롯데(광주)	
색다른 동거	시골 출신의 순진한 순종이가 색다른 귀신을 만나 동정을 경험하게 된다. 18세 관람가.
롯데(광주)	
패솔로지	의문에 싸인 죽음을 밝혀내는 병리학 살형상을 소재로 한 스릴러 영화. 18세 관람가.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버티 리스트	죽음을 앞둔 두 노인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12세 관람가.
콜롬버스(상무), CGV(상무)	
경축 우리사랑	마흔의 삶의 평범한 아름다움과 스물한 살의 연하남과 사랑에 빠진다. 15세 관람가.
히미	
GP 506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경계초소에서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진다. 18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히미	
삼국지: 용의 부활	삼국지의 전설적인 영웅인 조자룡을 주인공으로 한 무협 블록버스터. 15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히미	
도래미파술사시도	'늑대의 유혹' '그놈은 멋있었다'에 이어 귀여운 동명소설을 영화화 했다. 12세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어 웨이크	수술 도중 일어나 미취중 각성 때문에 연쇄 살인이 일어난다. 15세 관람가.
메가박스, 콜롬버스(하남), CGV(상무), 히미	



주목! 이영화 '스트리트 킹'

한 때 파트너였던 동료 형사의 살해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제 1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벌어지는 거대한 사건과 그 속에 담긴 비밀을 추적하는 느와르 액션 스릴러물이다.

'분노의 질주' 'S.W.A.T. 특수기동대' 등의 시나리오를 집필한 데이비드 에이어가 직접 메가폰을 잡았으며 할리우드 톱스타 키아누 리브스와 포레스트 휘태커가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키아누 리브스 무한 액션

툼(키아누 리브스 분)은 LA경찰국의 베테랑 형사로, 오랜 세월 거리의 범죄자들과 씨름해오며 어느덧 정의감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따지는 대로 사건을 해결해왔다. 내부에서조차 악명 높은 그의 스타일은 한 때 파트너였던 워싱턴과의 불화를 야기한다.

그러던 중 대낮 피살 사건이 벌어지고 하필 그 현

장에 있었던 ���은 뜻밖의 총기오발 사고로 경찰에 의해 제1 용의자로 지목될 상황에 처한다. ���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다급한 현실 아래서 이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증거물들을 직접 없애가며 진범을 찾기 위한 절절한 60시간의 사투를 시작한다.

<19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 56주년을 축하합니다.

- | | |
|--------------------|--------------|
| 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이낙연 | 나비골농협조합장 윤한수 |
|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 월야농협조합장 정상진 |
| 함평군의회의장 정현철 외 6명 | 손불농협조합장 김준완 |
| 전남도의회의 원나병기 | 천지농협조합장 정태연 |
| 전남도의회의 원김성호 | 함평군대표 전현주 |
| 농협함평군지부 지부장 진병덕 | 농협통합RPC |
| 함평교육청 교육장 김광호 | 새마을운동함평지회 |
| 함평축협조합장 임희구 | 천지환경대표 최성규 |
| 함평군산림조합 조합장 이승동 | 천보레미콘 임직원 일동 |
| 한전함평지점 지점장 신종순 | 제일건설대표 정진의 |
| 함평농협조합장 옥부호 | 주포건설 임직원 일동 |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성공을 기원합니다.